

- 더 블레싱 목회 칼럼 -

무덤 앞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The Blessing Pastoral Column] Singing a Song of Thanksgiving at the Tomb



The Blessing Church | 더 블레싱교회

2318 Whitesburg Dr, Huntsville, AL 35801

Email: TheBlessingChurch25@gmail.com

Homepage: TheBlessingChurch25.com

[YouTube.com/@TheBlessingChurch25](https://www.youtube.com/@TheBlessingChurch25)

[Facebook.com/TheBlessingChurch25](https://www.facebook.com/TheBlessingChurch25)

[Instagram.com/TheBlessingChurch.25](https://www.instagram.com/TheBlessingChurch.25)

담임목사 이재윤

Senior Pastor Dr. Jaeyun Lee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으레 황금빛 들녘과 풍성한 과실, 가득 찬 곡식 창고를 떠올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손에 쥐어진 결실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추수감사'의 현장은 뜻밖에도 풍요로운 논밭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앞'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르가 병들어 죽고, 무덤에 장사 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는 커녕, 통곡과 원망이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가장 위대한 감사를 올려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 11:41)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돌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적 감사가 선포되었을 때, 닫힌 돌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죽음을 이겼고, 감사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또한 풍요의 축제가 아닌 생존의 감사였습니다.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동료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가득 찬 곡식 창고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은 수많은 무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조건이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무덤처럼 캄캄하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도와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안의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고, 나를 얽어매던 염려와 두려움의 수건을 풀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예비하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사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도 “이미 들으신 줄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기적을 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When Thanksgiving approaches, we naturally think of golden fields, abundant fruits, and barns filled with grain. It is right and beautiful to count God's grace bestowed upon us throughout the year and be thankful for the fruits in our hands. However, the scene of "True Thanksgiving" spoken of in the Bible was unexpectedly not a fertile field, but **“in front of a tomb”** where the stench of death prevailed.

John chapter 11, which we opened today, begins in a desperate situation: the death of Lazarus. Lazarus, whom Jesus loved, fell sick and died, and it had already been four days since he was laid in the tomb. That place, where all hope was cut off and the smell of the decaying body filled the air, was a place befitting wailing and resentment rather than thanksgiving, when viewed through human eyes. Yet, right in the middle of that despair, our Jesus lifted His eyes to heaven and offered the greatest thanksgiving.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John 11:41)

Lazarus was still in the tomb. The stone door was still shut. However, the Lord did not look at the visible reality but believed in God's promise and gave **“thanks in advance.”** And when that preemptive thanksgiving was proclaimed, the closed stone door opened, and a miracle occurred where the dead man walked out. Gratitude overcame death, and gratitude turned despair into hope.

Historically, the very first Thanksgiving was also not a festival of abundance but a thanksgiving for survival. In 1620, the Puritans who arrived in the New World lost half of their company to severe cold and disease. Before them lay countless graves where they buried their beloved families, instead of barns full of grain. Nevertheless, they offered a service of thanksgiving with tears in front of those graves. For them, thanksgiving was not something done when conditions were met, but a **“confession of faith”** trusting in God's love that even death could not seve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ere do you stand in your life as we welcome Thanksgiving Sunday 2025? Is your heart perhaps dark like a tomb due to unresolved problems and pain? Does regret and resentment remain, asking, “If only You had helped me a little earlier...”? Today, the Lord standing before Lazarus's tomb speaks the same to us. **“Did I not say to you that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True thanksgiving is a proclamation of faith that transcends circumstances. When you move aside the stone of unbelief within you and unbind the napkin of worry and fear that entangles you, God will perform the 'New Thing' He has prepared for your life. The love of Jesus, who walked the path of the cross to save Lazarus, is the power that makes us live again today.

I hope that this Thanksgiving Sunday, thanksgiving offered through faith, not based on visible conditions, will be restored. Even in the face of a tomb-like reality, may your thanksgiving of proclaiming “I believe You have already heard me” become the key that opens closed doors and calls forth miracles. I bless your homes and workplaces to be filled with God's amazing harvest that turns death into life and despair into praise.

“Thanksgiving creates miracles. Everything is God's grace.”